

미국 페어리디킨슨 대학 졸업식 초청연설 “후진국가의 리더십”

※ 외유(外遊) 중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페어리디킨슨 대학 졸업식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후진국 한국의 고민과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연설은 영어로 진행됐다. (이하는 직접 친필로 작성한 국문 원고이다.)

사마티노 대학 총장, 데커 부총장, 파티머 교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이 훌륭한 학문의 전당에서 여러분에게 ‘후진국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소견(所見)의 일단(一端)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학자도 아니요, 더욱이 정치가도 아니며 어떠한 권위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제한된 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여러분의 참고가 될 수 있겠는지 저이기 염려됩니다.

20세기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전 자유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자유세계는 여러분이 지도하게 될 것이며, 오늘의 자유세계의 운명이 미국에 달려 있듯이 내일의 자유세계의 운명은 오로지 학생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요, 수많은 뜻있는 자유민들은 각기 과거와 현실과 입장을 달리할지언정 한결같이 미국의 젊은 학도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내일의 희망과 기회와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와 같은 무명(無名)의 일 학도(學徒)를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50만 년 전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인류는 자연도태(自然淘汰), 적자생존(適者生存) 등의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장구(長久)한 소장(消長)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연(然)이나 인류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요, 민족 간의 대립이 주된 역할을 해온 것이 세계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진-후진, 개화-미개, 번영-빈곤 등이 어휘로써 표현되는 우열(優劣)이 현저히 구분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열의 심한 차이는 인류사 50만 년 간의 진화법칙에 결과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보다도 근대 2~3세기 동안에 있어서 진취적인 민족과 퇴영적(退嬰的)인 민족 간에 판결 지어진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역사의 발전이란 무정형(無定型)으로 혹은 혼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향을 가진 합법칙성(合法則性) 하에 행해지는 것이며, 역사현상의 본질적 부분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 위치를 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여하간에 19세기가 구라파 열강국에 의한 아시아 제국(諸國)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화(半植民地化)의 제국주의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는 아시아 제국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자주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 이민족(異民族)의 혹독을 극(極)한 착취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후진국가들의 민족주의운동의 필연성은 그 철쇄(鐵鎖)에 묶여보지 못한 사람들은 관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몸소 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또한 인과(因果)의 연속입니다. 오늘 조성된 원인은 1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원인의 공과(功過)는 곧 후손들의 행·불행의 결과로써 재래(齊來)되는 것입니다. 후진의 원인이 몇 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이라면, 오늘의 후진국가군(後進國家群)의 팽배한 민족자주의식은 그 본질에 있어서 역사적인 필연성을 시현(示顯)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제2차 대전은 1945년을 고비로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이 ‘냉전(冷戰)’이라는 변질된 전쟁으로 오늘에 계승되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자들은 후진국가군의 민족주의에 교묘히 편승 잠동(潛動)하여, 특히 반미적 배타운동으로 유도 선동하면서 ‘냉전’ 하의 후진 민주국가군의 진로에 혼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후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건전한 민족주의마저 위협시키는 경향을 자아냈으며, 내일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데서 자유세계 내의 국제협조체제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 여러분,

역사는 일국(一國)의 생존이 결국 그 나라의 최종적인 책임이며, 여하한 경우이건 간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내일을 지향하는 강렬한 민족주의 의식과 ‘내 나라’ 속에서 생(生)을 영위하고 있다는 투철한 자각을 견지하는 민족주의 - 배타도 봉쇄도 독선도 추종도 없애버려, 국제협조 시류(時流)에 맞는 건전한 민족주의 - 이른바 이러한 이성적인 민족주의 없이 후진 민족국가의 생존과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내일의 자유세계를 이끌어 나갈 학생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국가가 지니는 문제는 탄탄하지만, 후진국일수록 정치·경제면의 불안정에서 야기되는 폭발점에 가까운 불만과 수많은 복잡하고 지난(至難)한, 거의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모순된 요구들이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불급(慾不及)의 만상(萬相)이 오늘날 후진국가군에 있어서의 세기적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특성의 또 하나는 많은 후진 민주국가들이 소수의 강대국에 의하여 사실상 그 나라의 주권을 제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의미에서 불가피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강대국들은 그대로의 발전과정에서 개별적인 민주주의가 쇠퇴해가고 있다 할 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이익과 번영을 토대로 하는 국가주의로써 각각 자국민(自國民)을 국가적 규범 속에 묶어놓고 있는 현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국가단위의 지역적인 공영권(公營圈)을 이룩하여 상대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학생 여러분,

여기 고민하는 한 민족국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나의 모국인 한국(韓國)입니다. 4, 5세기에 걸쳐서 고구려의 강토는 멀리 만주 대부분을 점유하였던 강대국이었으나,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합병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만, 그토록 융맹하고 진취적이었던 한민족이었건만 어찌하여 퇴嬰민족(退嬰民族)으로 전락 쇠퇴하여 국토를 잃게 되었고 면면(綿綿) 5천년의 강토를 송두리째 식민지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인가. 우리 한민족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14세기 말엽으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 6백여 년간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바로 이씨왕권(李氏王權)이었습니다.

14, 5세기라고 하면 구라파에서는 르네상스의 초기에 해당합니다. 즉 봉건사회가 쇠퇴하고 봉건귀족과 교회의 세력이 후퇴하면서 도시와 시민계급이 대두하고 절대제(絕對制)의 국민국가가 성립되거나 혹은 성립이 요망되고 있던 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스럽고 인간적인 문화가 희구(希求)되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씨 왕권은 사대주의(事大主義)와 퇴폐성의 근원이 된 유교를 국교화(國教化)하여 이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봉건적 신분별로 유교국가적 관료기구를 완비함으로써, 오늘 이 후진의 ‘씨’를 뿌려놓았던 것입니다.

지난 5백년, 우리 조상들은 유교만을 지상(至上)의 것으로 숭상하였고, 유교는 그가 지니는 매우 비과학적인 관념론으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담론풍발(談論風發)·제사근담(諸士權談), 쓸데없는 비분강개(悲憤慷慨)로 장구한 시일을 허송케 함으로써 후세에 민족감상주의(民族感傷主義)로 뿌리박았을 뿐만 아니라 사화(士禍)와 무자비한 당쟁은 민족을 분열시켰으며, 그 화근(禍根)은 오늘날까지 슬픈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앞에서 선진 - 후진의 결정적인 판가름이 근대 2, 3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구라파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후 관념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로써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문자 그대로의 폭풍과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대 - 혁명과 전쟁과 갖은 비정(非情)의 와중(渦中)에서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결과지음으로써 오늘의 민주주의 제도와 번영과 자유를 재래(齊來)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격랑시대에 안이한 풍토에 갇혀서 유아독존격(唯我獨尊格)으로 공론(空論)과 고식(姑息)과 사색당쟁(四色黨爭)과 퇴폐적인 사대사상(事大思想)과 쇠국(鎖國) 속에서 나날을 보내온 한국은 민족주체 의식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침내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에 궁(亘)하는 식민지 분할시대에 신흥 일본의 식민지로 된 것이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인과(因果)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연합국의 승리로 인하여 한국은 36년 만에 일본의 철쇄(鐵鎖)로부터 풀렸으나, 한국의 불행은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국토가 양단됨으로써 반신불수(半身不隨)의 큰 병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0년부터 한민족의 염원은 민족국가의 자주독립이었으나 1945년부터는 국토통일이라는 민족의 비원(悲願)이 하나 더 보태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주신 시련은 결코 그것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 북한 괴뢰군과 중공의 붉은 군대는 마침내 무방비상태이던 한국에 대하여 침략전(侵略戰)을 도발하여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전 한국을 철저히 황폐화하고 말았습니다.

이 적색(赤色) 침략전은 2백여만 명의 한국 민족만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을 10여만 명이나 사상케 하였던 것이며, 수만의 여러분의 선배, 친지, 가족은 자유한국의 수호신으로서 한국이라는 이국(異國) 땅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자유진영 수호에 대한 엄숙하고도 단호한 선언인 것이며, 이제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한민족과 더불어 우애와 상호 신뢰로써 살아나가겠다는 생생한 증좌(證左)이기도 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후진 민주국가의 발전에 정신적인 집거처(集據處)로서의 민족주의와 한국의 후진성의 원유(原由)를 극히 개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일국의 생존은 그 나라의 최종적 책임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나라'라는 강렬한 자각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건전한 민족주의가 정신적 기반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후진성으로부터의 탈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서구로부터 직수입(直輸入)한 보편적 사상으로서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어느 면에 있어서는 혼돈을 자아냅니다.

1945년 이래 16년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시행기(試行期)였습니다. 즉 내 몸에 배지 않은 보편주의 사상을 그대로 시행해 본 것입니다. 결과는 정치는 파쟁으로, 경제는 파탄으로, 사회는 문란으로,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로 각각 전락됨으로써 1960년과 1961년에 두 차례의 혁명을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것은 우리 민족주의 의식과 고유사상의 빈곤 내지는 결핍을 증명하는 것인즉, 한국은 불굴의 정신과 인내와 희망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를 건전하고 이성적인 민족주의 기반 위에 확고히 재건하는데 있어서 어제의 시행착오를 진지하게 시정하면서 전 민족의 귀중한 노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거친 일정한 과정만 똑같은 절차로 밟으면, 어느 곳 어느 경우이건 똑같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모든 여건 - 특히 경제적인 뒷받침이 구비되지 않는 한 그 보편성이 상실된다는 논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하한 주의사상(主義思想)에 있어서도 금과옥조식(金科玉條式)의 교조주의(敎條主義)나 권위 맹종주의(盲從主義)는 버려져야 하며, 적합성과 융통성과 시대성에 용해(融解)될 수 있는 시행이 주체성 있는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민주국가의 다양한 민주주의가 몇 만 년의 시행착오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막중한 특성을 지拂하는 과정을 밟고 경제적 토대 위에 비로소 확립된 것임을 상기할 때, 그 제도만을 그대로 직수입하거나 모방한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상이한 다른 민족이 똑같이 누릴 수 있겠는가의 여부는 너무나 자명(自明)한 것입니다.

오랜 시일과 많은 시행(試行) 끝에 각자의 몸에 지니게 되고 적합하게 자신의 것으로 섭취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기적이나 요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후진 민주국가의 고민이 있다 함은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배경과 현실과의 모순, 경제적인 빈곤, 국제적인 유형무형의 압력 등을 극복하면서 원대한 앞날을 목표로 민족을 신념과 지혜로써 이끌어 나가야 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정치풍토를 특징 지우는 것에 강력한 행정부와 영도력의 확립이라는 권력집중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국 공히 자기보존과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는 자기확대(自己擴大)가 국가의 제1의적(第一義的)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자유나 권위의 가치도 국내외에 행사되는 국가의 행동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진 민주국가는 의회정치가 갖는 원심적(遠心的) 작용의 번거로움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영도력의 확보로써 변천무쌍(變遷無雙)한 제(諸) 정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저히 리더십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후진국에서 탈피하려는 약소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은 더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가 안정되고 민도(民度)가 높은 선진 민주국가는 여론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후진 민주국가의 영도자는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바탕으로 여론을 이끌고 국민에게 희망과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빈곤에 시달린 나머지 때때로 ‘부담’처럼 취급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치에 실증난 국민들은 고유의 민족정신과 진취적인 민족의 나갈 길을 명시해 줌으로써 소생시켜야 합니다. 후진적 모순에서 포지(抱持)하게 되는 국민의 불만을 연화(軟化)시키는 적절한 배출구를 마련하면서 민족적 동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의 제시와 민족의 이에 대한 호응은 후진 민주국가 영도자의 근본이 되는 영도력(領導力)임을 나는 강조합니다. 후진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발전은 적합한 제도 확립이 우선하나, 그러나 또한 영도자와 영도력에 의존하게 됨은 자명(自明)한 이치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개인의 운명에 직결되는 것이고 보면, 먼 후일을 바라보며 현실을 인내해야 되고 어제를 부정적으로 계승하여 내일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요행(僥倖) 없는 노력을 따므로써 해나가야 되는 후진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진정한 리더십이 얼마나 긴요하게 요구되는지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두서(頭序) 없는 나의 이야기를 끝맺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 없는 민족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류의 행복은 비단 강대국만의 책임이 아니며 거기에는 후진 민주국가군(群)의 진정한 발전과 노력이 크나큰 기여를 해야만 성취될 것입니다.

내일의 운명을 결정지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회와 기대를 걸고 그날그날을 광명을 희구하며 고민과 빈곤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수억(數億)의 자유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느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의 광복과 통일,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10년 여일(如一)하게 절대(絶大)하고 성의 있는 원조를 아끼지 않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동양의 격언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은인(恩人)은 쉬 잊어버리지만, 그 은(恩)은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법이다.”

감사합니다.

(1963. 9.20, 밴쿠버)